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호 [루계 제2680호]

주체 111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음력 12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전통의 영광과 향토로 엮이는 10년

## 김정은시대에 마련된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들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농촌마을들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



로동자와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가까운 앞날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이 공화국의 웅대한 목표이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의 하나가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는것이다.

도시사람을 부럽지 않은 문화적인 환경에서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지난 10년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해 나라의 곳곳에서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들이 창조되어 온 나날이었다.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훌륭히 전변된 법안리



문명개화된 농촌도시 장전남새온실농장

### 응대한 구상

농촌마을들의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현대적미가 나면서도 깨끗하고 아담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주체103(2014)년 2월 전국 농업부문본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사회주의농촌체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켜나감에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진행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에서도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농촌본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으로, 전투적기치로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을 제시 하시면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어 농촌특유의 문화발전, 우리 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체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 농촌마을들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여주시었다.

력사적으로 처음 진행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도, 시, 군당책임

비서들이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혁명, 계속투쟁해나간다면 모든 시, 군들이 살기 좋은 고향으로 변천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이 지방의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변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웅대한 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도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선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

면서 지방들에서 우리 공화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었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도래하였다는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지로 어떻게 변모되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높아지는가를 배설있게 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진정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기준, 농촌사람들의 리상과 목표, 문화적수준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에 한쪽의 그림자같이 안겨오는 강계시 홍주남새전문농장.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천지개벽된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자연재해의 흔적,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린 강북리와 대청리를 비롯한 재해지역들에 솟아난 선경마을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의 모습은 날로 더욱 황홀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복구한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그날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켜나감에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이렇듯 농촌마을들을 하루빨리 더욱 훌륭히 변모시키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강령을 제시 하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우선과업으로 제시하시였던것이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이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는것은 전제 헌법, 본보기에 바로고 환호하는 인민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을 펼쳐놓는 정치사업이며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하는 력사적인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사랑의 손길에 받들려 가까운 앞날에 공화국의 농촌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문명한 고향으로 전변될것이다.

본시기자 주일봉



금천군 강북리의 새집들이경사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농촌마을



천지개벽된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마을



광천관광장 사료보장농장마을

# 승리의 진로, 필승의 향도

##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 각지 인민들의 열의는 비상히 양대되었다. 모두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 큰 기적과 승리를 안아올 일념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과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열의로 들끓고 공창, 기업소들에서는 년초부터 생산직장 양이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들로 세멘트를 실은 열차들을 련일 떠나보내고있으며 풍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대상설비생산을 박력있게 추진하고있다. 또 황해북도와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는 새해 첫날에 많은 량의 과일을 지원하여 강철전선을 힘있게 고무하듯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더 많은 비료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느 일터를 가보나 모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신심과 활력에 넘쳐 생산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새해 정초부터 온 나라에 승리의 신심이 가득 차넘치고 모든 일터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는데는 옳바른 방향과 정확한 투쟁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실현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공화국인민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의 길로 끝바로 이끌어가는 데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주체조선의 백성의 비결이다.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길에서 부국강병의 대업이 이룩되고 공화국인민들은 영연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사회주의건설을 확실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또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중요회의들을 소집하시고 공화국이 나아갈 명확한 투쟁방

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예외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언제나 담보나 침체를 모르고 앞으로만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그것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러 위험천만한 자연재해지역들을 찾고찾으시는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길에서 재해지역들에 훌륭한 새 마을, 새집들이 일떠서 인민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드리웠던 그늘을 가시여주고 행복의 웃음이 강산에 차넘치게 되었다.

지난해 공화국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변과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적이 승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승리의 길로 확실성있게 이끌어가는 길의 의지를 지니시고 지난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그

리고 그 실현을 위하여 련이어 열린 중요회의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이렇듯 공화국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불문불류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공화국인민들은 사상초유의 령도와 위기가 겹쳐지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도 끄떡없이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으며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공화국의 발전상과 지력을 크게 파시하였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삼지연시우리기 3단개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건설의 본보기가 마련되었으며 검덕지구의 수천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도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

또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는 속에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수백명의

혁신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온 나라에 집단주의열풍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시면서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해 12월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력사적인 보고 《우리시대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안고 회의에서는 올해의 투쟁과업과 새

로운 농촌건설강령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심도있게 토의되고 한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진정 공화국인민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항도적투쟁방침, 전진과 혁신의 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고 새 세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올해의 진군길이 시작부터 활력과 기백으로 차넘칠수 있는것이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2021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처럼 새해 2022년은 더 큰 승리로 공화국력사에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신것은 모두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고 그이께서 결심하신 무조건 현실로 꽃피게 한다는 믿음을 안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올해에도 세상을 놀래우려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를 세운으로, 체험으로 또다시 안아올 열의를 안고 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백명일



3대혁명을 동력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자 진보와 락후가 병존하는 불균형적, 비전형적인 발전을 종지부를 찍고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자립, 자존으로 변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구원해오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토선을 계승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놓을 위대한 구상을 펼쳐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3대혁명토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성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진자대회를 소집하되 하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서한에서 그이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이 운동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로 내세워주시었다.

또한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길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이 운동을 벌리는데서 나라나고있는 전환을 극복하고 이 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시대와 사

회주의대건설전투시기의 집단주의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차 3대혁명선진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3대혁명토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변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이 공화국의 결의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는 3대혁명토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투쟁의 결과로써 도래한 력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보다 높은 단계의 3대혁명으로써 이룩될 발전의 새시대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3대혁명을 새로운 높에서 힘차게 다그쳐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금처럼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과 작업반을 단위로 벌일것이 아니라 시, 군, 련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사상과 토선을 제시하시었다.

이 로선은 공화국에서 벌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격에도 맞고 전체 인민의 일치단결로 승리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에도 부합되며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는 현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임무에 맞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로선이다.

이 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김금화

## 3대혁명을 동력으로 사상리론을 변혁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사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뜻깊은 화폭들이 많이 남겨져있다.

그중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으시는 사진도 있다.

예로부터 운명을 함께 하며 머나먼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를 《한배에 오르다》, 《한배를 탔다》는 말로 표현하여왔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참된 애국의 길에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는 등지로 홍명희선생을 내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이 민족을 위한 빛나는 생으로 되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정과 사랑이 이 한 폭의 사진에 다 어려워있다.

홍명희선생으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부터 애국계몽사업과 민족주의운동에 적극 나섰던 지식인이었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중심을 지니고 남조선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1947년 10월에 민족독립당을 결성하고 그 당수로 활동하였다.

주체37(1948)년 5월 6일 력사적인 4월남북선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홍명희선생을 친히 만나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일 우리가 민족분열의 엄혹한 형세를 판만 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대들이 겪어온 피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결만이 민족생명의 길이고 민족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 신념을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주시었다.

한지맥, 한피줄을 이은 나라의 민족의 절반이 외세에 의해 짓밟히는 참상을 가셔내시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넘쳐나는 말씀을 새겨안으며 홍명희선생은 수령님의 높은 신 뜻을 받들고 북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워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의지를 가다듬게 되었다.

북조선에 남아 일하고싶다고 하는 홍명희선생에게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공화국창건후 내각부수상의 중책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그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었기에 홍명희선생은 조국통일사업에 자기의 이름을 뚜렷이 새길수 있었다.

만물이 태양이 있어 존재하고 태양의 따사로움 빛이 있어 이 땅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수 있듯이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 계시었기에 홍명희선생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통일에국인사로 그 이름을 빛내일수 있었다.

홍명희선생과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이 모셔진 사진은 오늘도 말해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생이 빛나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이 바로 온 겨레가 안겨갈 참다운 삶의 품이라는것을,

본시기자 리경월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주체37(1948)년 5월의 따뜻한 봄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동강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축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열려있다.

이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몸소 잡으신 물고기로 어죽이며 승어회를 비롯한 구미를 돌리는 갖가지 요리를 만들도록 하시어 소박한 야외오찬을 마련해주셨다.

오찬에서 그이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음식그릇도 거운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백범 김구가 명천암 주지노릇을 하던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화제는 점차 종교에 대한 문제로 번져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잔을 권하시며 종교인 가운데는 우리와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라면 정견과 신앙에는 관계없이 누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주체86(1997)년 1월 총련에서는 지부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요지부의 위원장들을 중앙위원으로 선출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중앙위원 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최근 총련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을 잘하고있다고, 특히 지부위원장이 신심을 가지고 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며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내어 그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해주려 한다고 하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오늘 총련앞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애국적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할 무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고, 임진왜란때 수천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왜놈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잘 싸운 우리 나라의 서산대사와 사명당도 충이었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신을 믿고 안 믿는것은 사람들의 자유이다. 그렇지만 하늘을 믿어도 남의 나라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남조선대표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석님의 숭고한 뜻에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넓은 도량과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인가 조국통일상수상자 선발사업이 한창일 때였다.

조국통일상을 수여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시선을 창밖에 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찬가지로 해외교포운동도 일정 단위를 거점으로 하여 조직 전개되어야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총련지부로 말하면 제일조선인운동의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역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총련지부에서는 동포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애국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민족의 사랑을 받는 통일애국인들중에는 한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하여 반공의 길을 걷다가 잘못 살아가는 지난날과 결별하고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명단에 그

민족의 사랑을 받는 통일애국인들중에는 한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하여 반공의 길을 걷다가 잘못 살아가는 지난날과 결별하고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명단에 그

때에는 주락에서 멀리 떨어진 총련지부인들이 있는 곳까지 몸소 다가가서 100명이 넘는 그들의 잔을 일일이 짚어주시며 동포들이 살고있는 일 본전국을 다 돌아본셈이라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을 잘하자고 고무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총련에 보내 주신 마지막총련도 바로 총련지부인들에게 보내주시는 축전이었다.

참으로 총련지부가 걸어온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총련지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일을 추억하시는것이였다.

일찌기 조국에서 군이 중요하듯이 총련에서는 지부가 중요하다하며 지부강화를 위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수령님, 어드레 4월의 오찬회

자욱자욱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자욱자욱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대로 지부를 강화하는데 전 조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고나서 지부의 거점역할을 높인는데서 너는 중요한 문제들을 주체의 휘황한 빛발로 환히 밝혀주시었다.

민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심한 스승의 손길로 총련지부위원장들의 사업을 이끌어주시는 그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는 그의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 해외교포운동의 또 하나의 보검을 받아안은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이때부터 총련에서는 사업중심을 지부강화에 두고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애국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력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본시기자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사업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전일일군들이 있으며 조정, 상공회, 내령, 청상회 등 총련선하단체들의 지역조직들이 꾸려졌다. 각계각층 동포들이 이의 접촉과 령도도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동포군중과 직접 대상하는 곳도 본회와 함께 지부라고 할수 있다.

그이께서 생각하시는 총련지부는 바로 이러한것이였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생각이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여기에 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고귀한 명언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마더마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함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루팔리 이룩해야 불행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부강번영을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통일만이 자주와 번영의 길, 민족이 살길이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곧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판문점에 세워진 통일친필비



주체83(1994)년 7월 8일 우리 겨레는 뜻밖에도 가슴아픈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 있어 가장 큰 불행이었고 최대의 상실이었다.

그러한 첫 사업의 하나가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조국통일과 관련한 뜻깊은 친필을 비에 새겨 건립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길이 전해가도록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울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친필비형성도안으로부터 해설 문내용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시었다.

주체84(1995)년 5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생애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고귀한 생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유산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며 그것을 지침으로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드림있는 신념이요 의지이다.

루전날에 친히 조국통일관계 문건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김 일 성 1994. 7. 7.》이라는 글씨가 그의 필체 그대로 새겨져있다. 그리고 비문판아래 목란꽃장식부분 윗단에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업업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문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는 사적비문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유산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활동과 조치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기어이 안아올 각오와 결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세계 2022년의 장엄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공화국의 그 어디서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인민들의 신심넘친 기상을 엿볼수 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새겨 보노라면 몸은 비록 멀리 이역만리에 있다 해도 언제나 조국과 슬결을 같이하고 조국의 전진에 보복을 맞추며 공화국의 흥성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자랑찬 모습도 여러...

제4차회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재일본조선학생동맹(유학동)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조직의 자랑찬 성과도 있다. 특히 녀성동맹은 조국의 목소리에서 돋나서들속에서 전제지도록하기 위한 사업과 새 전성기에 애국애국보병창조운동을 위한 분회별경쟁을 심화시키고 《분회경쟁모임》, 《분회...

원모임》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분회경쟁운동을 고조시켰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총련조직은 세계적인 대륙행진전염병상황이 계속 악화되고있는 속에서 위기를 겪는 동포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신심을 북돋아주어 생명안전권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데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제1차회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재일본조선학생동맹(유학동)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조직의 자랑찬 성과도 있다. 특히 녀성동맹은 조국의 목소리에서 돋나서들속에서 전제지도록하기 위한 사업과 새 전성기에 애국애국보병창조운동을 위한 분회별경쟁을 심화시키고 《분회경쟁모임》, 《분회...

통일을 불러. 이 후는 인민기반의 연막인 《덕수궁 한미회담》에도 끼여 들었다. 이어서 미군정의 과도립법의원조작에도 참여하였다. 지어는 미군정청이 쇠유준 민정장관감두를 쓰고 한민국의 개국행위를 거리 매꾸어 하면서도 마치 조선민족이 처한 객관적환경으로 하여 그렇게 할수밖에 없길 없다고 사람들은 기만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는 미국에 기대를 걸었고 자기의 생각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것이였음을 통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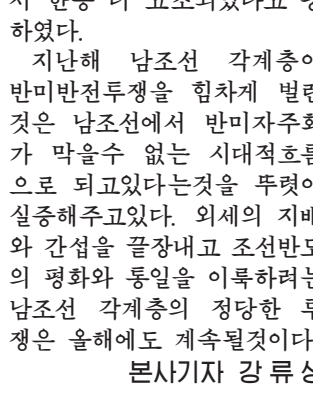
반미자주, 평화와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해초 신년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앞당기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자주통일운동을 완강하게 벌려 나갈 립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국민주권련대, 평화이음...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기둥이 있어야 절충고도에서도 희망과 신심에 넘쳐 전진할수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들은 해외동포모두를 자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단결한 총련의 진보들을 다시 가까이 있는 지식분도...

한동군사연습은 북을 《죄》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하기 위한 위협적인데 미친것이라고 하면서 각개충 단체들과 주민들이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위한 투쟁에 걸기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경기주권련대, 광주전남주권련대, 민중철수부상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단체들 역시 광주, 대구, 부산, 경기도를 비롯한 도처에서 미국령사관포위작전, 1인시위, 항의행동, 평화행진들을 벌리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론, 전문가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기간 정쟁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열기가 곳곳에서 한층 더 고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해 남조선 각계층이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벌린것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은 올해에도 계속될것이다.

이후에는 인민기반의 연막인 《덕수궁 한미회담》에도 끼여 들었다. 이어서 미군정의 과도립법의원조작에도 참여하였다. 지어는 미군정청이 쇠유준 민정장관감두를 쓰고 한민국의 개국행위를 거리 매꾸어 하면서도 마치 조선민족이 처한 객관적환경으로 하여 그렇게 할수밖에 없길 없다고 사람들은 기만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는 미국에 기대를 걸었고 자기의 생각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것이였음을 통감하게 되었다. 당시 민정장관이란 사실상 미군정청이 줄을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그는 자그마한 산골꾼의 군수 하나 마음대로 인명할수 없었고 보잘것없는 자전거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조차 미군정장관의 거부로 실현할수 없었다. 더우기 그는 자기의 모든 행동이 특무들의 감시를 받고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도청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처지를 두고 굴욕감으로 가슴을 쳤다. 결국 미국은 벗어 아니었다. 그 시기 남조선에서 단독선거유보를 꾸미고있던 미국은 안재홍선생도 여기에 끌여넣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니라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미 민족애지는 피도 끈것인데 어떻게 죄를 뒤집어쓰는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갈길 몰라 방황하던 바로 그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난국타개를 위한 현명한 방책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하여졌다.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앞에 닦은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자!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는 이명철한 방안에만 집한 안재홍선생은 무릎을 쳤다. 《과시 민족의 출로를 여는 현명지당한 조치로다!》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김규성, 본사기자 홍흥식, 본사기자 강류성

남조선에서 다음 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합당 움직임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고있다고 한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지난해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국회》에서 당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량당이 《당대당으로 합당하기로 하였으며, 겸합수사권폐지 등 사회개혁의 제법적화, 국회의원 3선초과제한, 의원국민주원칙 등 정치개혁의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매일경제》는 지난해말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과 관련한 열린민주당의 당원투표결과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진보정당통합을 통해 범진보정당을 결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본격화되는 통합 움직임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정혁

본사기자

#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 무엇때문인가

남조선에서 당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나오고있다. 《인구절벽시대》, 군대갈 사람이 없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해마다 병력수가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보충병으로 소집되었을 인연마저 현역으로 임명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인구추이로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국 《출산률하락상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뉴스1》은 지난해 11월 남조선당국이 노소수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한데 대한 야당의 불만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방부는

가 군부와 각계층에서 우려나오고있다. 《제안서에는 군수송기를 투입하는게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야당은 《기름값 1억원 내도 노소수 수(보여주기)를 내 것》, 《아무리 한방을한방을 이 귀한 시기라지만 참 민망

《뉴스1》은 지난해 11월 남조선당국이 노소수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한데 대한 야당의 불만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방부는

로 소집되었을 인연마저 현역으로 임명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인구추이로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국 《출산률하락상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군인사관만도 문제시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최근 해군참모총장을 호남출신으로 임명하는데 대해 군내부에서 《지역편중인사》, 《군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라는 불만이 터져왔다.

고 하면서 당국이 임기시작부터 검증을 리유로 대부분의 검증승급인사를 재발자에 하지 않고 질질 미루어온 것도 측근인물들을 군부에 박아넣어 장악하기 위한것이라는 비난이 울려나오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다. 불안한 방위상황, 높은 물가상승, 《대선》 등의 요인들로 경제지표달성이 불투명하다. 경제정책이 3개월짜리 《시한부정책》으로 끝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저녁들이 덥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벽들이 더워졌는가 하는 소릴 것이다.

황금만능과 약육강식, 재벌우선, 리윤추구, 외자의 존... 취약한 경제구조와 반인민적약정으로써는 《선진국》의 꿈을 이룬다는것이 허황하고 과도한 망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의 관계를 개선해하려고 부진 에를 쓰고있지만 수치고 모멸만 당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최근에 발간한 《외교백서》에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추켜세우고 《대화》를 통한 쌍방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등 일본에 계속 밀붙는 자세를 취하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처사가 도리어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들고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남조선이 《포괄적, 점진적한태평양경제권대협정》(《CPTTP》)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자 일본은 남조선의 《CPTTP》가입을 일본주인들의 이해와 지지가 우선이다. 의정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절대로 가입할수 없다, 일본산수산물들의 수입을 규제하고있는 남조선은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고 사대질을 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사와 관계개선문제를 분리대응 하자는 남조선당국의 간청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해결책》만을 앞박하고있었다 하면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니, 앞으로도 남조선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니 하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이어 《독도는 일본령토》라며 생억지를 쓰고 《독도보육법》이라는것까지 조작하는 등 강경립장을 취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의 대일공조적인 자세가 불려온 응당한 결과라 하겠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항상 약한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나라. 저보다 센 나라는 등에 업고 날치다기도 기회만 생기면 뒤잔등에 칼을 박는것도 서슴지 않는 간악무도하고 잔혹한 족속들이 바로 일본이다.

과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던 일본의 침략력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한마디로 약자앞에서는 승냥이가 되고 강자앞에서는 여우가 되는것이 일본의 본성이고 생존방식이다.

이런 일본에게 비굴하게 관계개선을 구걸하고있으니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갈수록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에서 당국의 태도가 일본의 강경자세를 부추기고있다. 대일공조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었다.

제반 사실은 추악하고 파렴치한 친년속적 일본에게는 사소한 타협이나 양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비굴한 처사, 오만방자한 행태

정 필

## 《선진국》 흉내를 내보려다가...

과 불합리성이 낳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결과이다. 거기에다 부동산정책, 일자리 정책 등 남조선당국이 주관적용망으로 추진한 《혁신정책》들의 실패와 무리한 재정확대정책실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 일자리의 꿈을 버리

대출한다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대출절벽》현상이 일어난 《대출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7%나 오르고 1인당 처우부담액은 1만 7 440US\$로 8.3%나 올랐

##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가. 철박한 민생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것은 지난해말 썩은 정치권에 대해 저주와 분노를 토로한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의 한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남조선정부는 한마디로 권력야망과 사리사욕추구를 위한 개싸움판이었다.

여야당 《대선》후보들의 리엔이 부정부패의혹과 실언들, 그를 둘러싼 각 당파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어 남조선정치의 추악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있다.

《대선》후보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저질스러운 망동과 부정부패로 수사대상 에 오르자 민심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사과놀음을 련속 벌리는 속에 여야당패들은

서로 집권하면 상대방을 일망타진하겠다. 범죄자를 반드시 단죄하여 감옥에 처넣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부패에 나설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정치적적수를 제거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싸움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이 《누군 눈여 띄우면 총을 랑사하는 정쟁러가 돼버린 선거판》, 《정쟁은 보이지 않음》과 중요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정쟁간의 대결장으로 바뀐 선거》라고 개탄했었다. 민생을 외면한 권력싸움은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과 민심의 거세찬 항거를 불려왔다.

지난해 현 《정부》가 부동산문제와 일자리문제 등

에 대한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부동산가격은 11.5%나 상승하고 일자리정책도 린이 실패하여 실업자는 110만 8 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 당국의 일률적인 영업제한조치로 하여 파산의 진창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문턱에 내몰리고있는 남조선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보아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와 민생실태를 잘 알수 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과 정치인들이 임버촉처럼 위우는 《국민을 위한 정치》란 사 이비정객들의 권력야욕과 당리당략을 위한 위선적인 당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사기자 김광혁

## 《〈검찰당〉의 쿠데타》

《매칭(무시)》하고 없으면 《애 나갔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야 할지 모르겠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검찰당〉의 쿠데타》

《매칭(무시)》하고 없으면 《애 나갔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야 할지 모르겠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에 울며 울며 나와 소리까지 《검찰당의 쿠데타》입니다.

불덜려 하강하는 악한산골 여름날 뚝뚝 떨어지는 생선값정도 됐다

참다참다 더는 참지 못해 제 집안에서까지 《후보교체》 불부는 소리쳤나

《개편》의 망치 똑딱거려봐도 《변화》와 《쇄신》 침마르게 웨쳐봐도

아서라 두엄더미에서 꽃이 피라 참 가솔한 그 것거리에 헛웃음만 나온다

한마디 해주겠노니 썩은 기동골 두고 서까래 갈아낸다 새집 되랴

선장을 잘못 만난 배는 울레갈데 없이 난파선의 운명이다 《국민의힘》 너의 운명도 다름없으리라

비난과 배척 민심의 그 드센 파도에 산산이 부서질 날 결코 멀지 않다



## 난 파선의 운명

깎여 놓는 숲에서 불난다더니 아닐세라 망조의 불씨가 튀었구나

악재의 불에 타고 혼란의 진멸에 허덕이는 말그대로 초상산 집이다 《국민의힘》 그 물결은

《선거대책위원회》 그 간판 내걸자 부터

알뜰과 마찰로 불고뜯는 싸움판 지지마다 기를 쓰고 다루는 승부 그야말로 대책없는 판부장이니 끝내는 갈기갈기 찢어진 너머처럼 해체되어버린 그 꼴 실로 가관이다

하για 물고긴 대가리부터 썩는다 했거늘

《대선》후보라는 작자부터 골치거리

아무리 거구라 매패가 좋다 해도 그래도 정도야 있어야지

련일 망언으로 비난과 조소거리

어디 그뿐이나

허위와 위조로 매달려진 가정부

매는

또 얼마나 썩은 내 물현 풍기는것

이나

마지못해 내뱉는 사과라진

기껏해야 둔한 요술사의 서툰

눈속임수

오죽하면 《국민의 힘》이 내세운 《대선》후보 그 말썽군의 몸값이

서명수

# 빛과 빛

## 희망의 빛, 승리의 신심

세계 2022년이 밝아왔다. 함께 바뀔 사람들도 누구나 세계에 대한 부름 꿈과 희망을 가진다. 세계의 꿈과 희망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덕담풍습에도 비껴없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에 전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과 희망이 생취되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화목을 축원하는 말들을 하였다. 하다면 세계 2022년은 북과 남의 인민들에게 어떻게 밝아왔는가.



공화국의 2022년은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왔다. 새해의 첫아침,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흥분과 격정속에 접하였다.

한 레일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쟁강령을 받아안았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올해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전원회의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도 뚜렷이 명시하였습니다. 지금 대담한 개혁과 활력있는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 체육인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습니다.》 ... 들으면 들수록 또다시 승리할 한해를 가슴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새해는 언제나 희망과 신심속에 밝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넘친 축복이 담긴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희망과 락관에 넘쳐난 새해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를 들으며 신심에 넘쳐 맞이하였던 2020년. 또 2021년은 어떠하였던가.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서한을 받아안으며 격정속에 맞이했던 새해였다. 이렇듯 공화국인민들처럼 령도자의 축복을 받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들이 또 어데 있겠는가.

# 북녘의 빛, 무궁은 환절

《올해는 (빛) 아닌 (빛) 찾아오길...》 이는 새해 남조선의 어느 한 잡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광화문 시민연립마당에 모인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것이었다. 새해에 희망의 빛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북에 살든 남에 살든 누구나 같은 법이다. 지난해 남조선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폐쇄질대로 폐쇄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2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로 인한 빚때문에 고민하다가 극단적선택을 했다고 한다. 희망의 빛이 아닌 죽음의 빔만 남았다는 그들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2022년 정초, 이 시각에도 무겁게 들려온다. 자영업자들만이 아니다. 2021년 남조선주민 1인당 채무부

담액은 1만 7 440US\$로서 2020년에 비해 8.3%나 더 늘어났으며 시장에서는 소비물가가 11년만에 최초로 늘어났다고 한다. 2021년 1월부터 12월중순까지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13.11%나 뛰어들라 2020년 상승률(6.43%)의 2배를 넘었다. 2월에도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3월과 4월에 다시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와 월세까지 급격히 늘어나 주민들의 욕성이 날이 갈수록 커졌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살기는 점점 힘들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여기에 사회양극화현상까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날에 대한 희망대신 증오심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맞이한 새해 2022년이다. 그러나 새해가 어찌 기쁠수 있고 즐거울수 있으랴. **본사기자 김춘경**



# 내가 알게 된 세상동이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소학교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학생 2명을 죽이고 학생 1명과 학부모 1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이 범죄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행인들에 의해 제압된 살인범은 29살의 청년실업자였다. 청년은 학비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구하려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은 끝내 자기를 살인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몬 사회에 앙심을 품고 10살 밖에 안되는 무고한 아이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이 사건으로 그 나라의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직업도 돈도 없는 청년에 의해 뜻밖의 불행이 당한 아이들. 무엇이든, 누구든, 누가 이런 생각을 품고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2018년 가을, 조국에서 대표적인 수재양성지로 손꼽히는 금성제1중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우리 일행을 마중한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교사실에 들어서니 북도의 벽마다 게시되어있는 직판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학, 물리, 영어, 화학, 생물을 비롯하여

교재내용에 해당하는 공식들과 법칙들, 상식들이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품어들어 만든 직판물들로 하여 교사의 모든 벽과 홀들이 지식홀, 상식홀을 이루고있었다. 특히 내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과목별로 전자칠판, 밀개식칠판 등 각이한 칠판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것이었다. 소학반 학생들의 교실에도 들어가보았다. 보조탁이 달린 이등식교탁과 학생들의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식책걸상, 학용품보관장, 교편물장 등 모든것이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어느 교실에 들러보아도 다 기능화,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서 실현되어있었고 어느 강좌실을 돌아보아도 교육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었다. 교실로부터 복도와 홀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공간이 학생들의 학습에 실지로 도움이 될수 있게 잘 꾸려져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땅결면은도와 바람속도, 바람방향, 대기온도 등을 측정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리용할수 있게 되어있는 지리학습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70여종의 나무들이 짝 들어찬 교재원과 여러 공식들과 외국어단어들을 익힐수 있게 꾸려진 야외학습터, 교사와 다름없이 지식홀, 상식홀이 꾸려져있는 밝고 아담한 기숙사... 발전하는 조국의 교육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우리 일행중 길에서 살고있는 동포가 교장에게 물었다. 《조국에 이런 수재교육을 주는 학교들이 얼마나 됩니까?》 《1984년 수재양성을 위한 평양제1중학교(당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개교한 이

후 각 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들에도 수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발됩니까?》 교장은 이 물음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라의 곳곳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우리 나라의 수재교육체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새세대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누구나 차별없이 키우며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그 인민적정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인민적인 교육시책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의 눈앞에는 어여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3명의 처녀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도 몸매도 나이기도 똑같은 금성제1중학교의 새생동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알게 된것은 몇년전 TV화면에서였다. 그날 저녁 TV로는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이 방영되었다. 공연제목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지금도 감탄하게 되는것은 아이들의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아직 유치원생티를 벗지 못한 소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의 기량은 높았다. 즐겁게 TV를 시청하던 나의 눈에 산뜻한 교복차림을 한 세명의 처녀애들이 안겨왔다. 척 보기에 머머모양이나 얼굴형이 같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아블싸, 그들이 새생동이가 아닌가. **재중동포 김영란**

# 수확 새해의 환눈에 없는 생각

어들이 깃들어 한송이두송이 내리기 시작한 눈은 어느새 온빛세계의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새해에 내리는 첫눈이어서인지 나의 마음속에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지난 한해의 가지가지 사연을 전해주는듯싶었다. 잊을수 없는 2021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새해의 첫아침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총심 일련단심 변함없으리라는 맹세를 담고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격정을 금치 못 하였던 공화국인민들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나갈것임을 선언 한 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는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악성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세계를 휩쓰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지 않았던가.

회한하게 전변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보통강간안다락주택건설장, 검덕지구에 일떠서는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백두산기슭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간의 리상도시, 은정어린 첫제물을 받아안고 행복에 웃음짓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 함경남도 피해지역에서의 새집들이정사... 한 해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로 낮과 밤을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하지만 자신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생은 다 물어두시고 오히려 건인발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조선로동당 대회가 열린 2021년을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인 온 나라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지 않으셨던가. 온 나라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어 기쁨에 젖어있던 지난해의 마지막날에도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더 힘있게 열어갈수 있는 실천투쟁강령을 제시해주셨다. 정녕 그이의 위대한신념과 달로 이어진 2021년이었고 거룩한 그 세계에 떠받들려 밝아온 새해 2022년이었다. 하기에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였고 그이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가고갈 총정 마음이었다. **김철**



# 후대사랑으로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셨다. 이 중대조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이 어려여있다. 돌이켜보면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관이 응축되어있는 이러한 중대조치는 이번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교육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

는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있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범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하시며 애육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들을

# 미래가 입을 하 다

했다. 가해자들의 컴퓨터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다 아이템을 도난당하자 언어, 신체적 폭력이 시작되었다. 권군은 가해자들이 가족을 해치진 않음과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구실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집안이 가난해서, 동통해서, 혹은 공부를 잘하거나 수줍음을 잘 라는 성격이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은 없었다. 학교폭력을 남의 이야기라 생각해서 그런지 학교측과 교육청은 축소하려 하고 경

심사를 가중 한가득 안겨주셨다. 진정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울 열과 정을 안고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들을 위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의의 손길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는 세인을 감동시키는 미래사랑의 전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으며 그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어버이님 높이 모신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들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있었다

언제인가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은 이렇게 썼다. 《고등학교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현실에서 고교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중에서 (한국)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있었다. 무엇이든 좋은 지표는 뒤떨어지고있는셈이다. **영영 멈춰버린 시간** 남조선잡지 《주간동아》는 남조선의 학교들에서 성행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그동안 가리워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학비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고교등록금은 나머지 서민들만 내고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연례상 중학생 권승민의 시간은 영영 멈춰버렸다. 권군은 또래의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선택을

했다. 가해자들의 컴퓨터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다 아이템을 도난당하자 언어, 신체적 폭력이 시작되었다. 권군은 가해자들이 가족을 해치진 않음과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구실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집안이 가난해서, 동통해서, 혹은 공부를 잘하거나 수줍음을 잘 라는 성격이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은 없었다. 학교폭력을 남의 이야기라 생각해서 그런지 학교측과 교육청은 축소하려 하고 경

찰은 귀찮아하고 언론은 보심을 안하고 정치인들은 관심 없다. **본사기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성

우리 민족의 발상지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안은 성벽들로 가로막아 내성, 중성, 외성, 북성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나 돌과 흙을 섞어 쌓기도 하였는데 통성에서는 외면축조방벽을, 평지에서는 양면축조방벽을 썼다고 한다.

의 축성년대와 함께 평양성건설에 고구려의 5부 사람들이 동원된 사실, 성공사의 담장구간, 담장자의 이름과 벼슬 등이 밝혀진데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작곡가 김원균



에 고충을 겪게 되자 그는 백두산에 오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

(1951년) 등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1970년대에 《피바다》 식혁명가극 창조사업에 공헌하였다.

동등한 화법을 새겨가는 사람들



조개껍질의 다양한 색깔과 무늬를 조형적표현수단으로 하는 만년화는 공화국의 독특한 공예의 하나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다.

나는 특산품을 훌륭히 만들어볼 결심을 안고 새로운 공예품제작에 달려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조개껍질을 여러가지 색깔로 가공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이에 기초하여 만든 상감 또는 부각형식의 공예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화

돌칸한증

(1)

한증이란 땀을 내며 몸을 뚫다는것을 뜻하는 말이다.

자기가 그 아름다운 비취색과 우아한 모양으로 세상을 경탄시키던 그 시기일 것이다.

그림 김윤일

와 땀을 씻고나니 몸이 거뿔해졌다. 몸살도 간대온데 없이 사라지고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는 찬 개울물에 뛰어들어가 어루- 어루- 하면서 땀과 재를 씻어내었다.



렇게 좋아하나? 《분수없는 등짐장사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신세인데 같은 값이면 내가 이런 땀내는 가마를 만들어놓고 밥벌이를 해보면 어떻겠나?》

렇게 반하게 만들어야 하네. 가마쌍는 일은 내가 도와줄 터이니 입자는 우선 벌이의 리속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해주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돌려라.

인삼로리

인삼정과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보신강장효과가 아주 뛰어난 인삼을 여러가지 로리에도 리용하였다.

인삼은 뿌리꼭지를 자르고 0.2cm 두께로 편을 내어 삶는다.

속담과 뜻

- ◆ 종이장도 맞들면 가벼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것보다 서로 힘을 합쳐 하면 쉽다는 뜻으로 집체적힘을 동원하는것이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